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지도력 I

(여호수아 1:10- 18)

원로목사이종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는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하여 주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1:6).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1:7).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1:9).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한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1:18).

하나님께서도,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백성으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지도자가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1. 그는 과거가 신실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27회나 계속 언급되고 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모범적 인물로 묘사되어 그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1) 출애굽기 17장 8-1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딕 사막을 지난 후 첫 전투였다.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팔레스틴 남방과 시나이 산 사이에 거주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전략을 잘해서 승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패했다는 것이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편에서 그 팔이 붙들어 올렸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출17:13)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2) 출애굽기 24장 13-32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나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돌 판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범죄하고 있었다. 모세는 두 돌 판을 던졌고 아론의 금송아지는 불타버리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의 저주를 목격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3) 민수기 13장 1-33절

가나안 땅에 보내진 열 두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다른 열 정탐꾼과는 달리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그 곳은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했었다.

같은 환경과 사실을 보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자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의 차이이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결정에 따랐다. 그 결과 그 날 이후 38년 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리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의는 아니며 불신앙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배웠다.

4) 민수기 27장 18- 23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신31:23)고 하셨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신34:9).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맛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지혜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99주년 삼일절

금년 3월 1일은 제 99주년 삼일절이다. 당시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였고, 기독교인들은 망설임 없이 만세 운동의 선두에 섰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나의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신앙 운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앞서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자.

2018 겨울 성경학교

유아부 · 유치부 : 2월 25일(주), 3월 4일(주)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5일(주)	서울교회	카다쉬 놀이터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3월 4일(주)			

권사회 연합 수련회



특강 강사
김의창 협동목사

2018년 살롬권사회(회장:양옥자 권사) 권사회(회장:김찬진 권사) 연합 수련회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1층 웨민홀에서 열렸다. 120여명의 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수련회는 경건회, 기도회, 특강의 순서로 열렸으며 특강을 맡은 김의창 협동목사는 '시련 가운데에서의 평강'이라는 제하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교회를 소개하며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대적자들을 두려워 말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되, 특히 권사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므로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2월 25일	주일	민수기 33		열왕기상 19~22 열왕기하 1~3	
2월 26일	월	민수기 34~36		열왕기하 4~8	
2월 27일	화	신명기 1~2		열왕기하 9~14	
2월 28일	수	신명기 3~4		열왕기하 15~19	
3월 1일	목	신명기 5~7		열왕기하 20~25	
3월 2일	금	신명기 8~10		역대상 1~5	
3월 3일	토	신명기 11~14		역대상 6~8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허경화 박수자 최근자 주화인/하규미 최영찬 김흥두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2월 세례식 거행

금년도 첫 세례식인 2월 세례식이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18일(주) 찬양예배 시에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찬양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 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세례교육부(임시 602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입교자는 다음과 같다.

* 입교 : 구민우 이다은 장한성



2018 성경 암송 대회

범위 : 하박국 전장
예선 : 9월 30일(주일)
본선 : 10월 12일(금)

2018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일시: 9.30(주)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일시: 10.12(금) 오후 7:00



사순절 묵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신이삭 집사 (청년부)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이야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증거로 고난을 주시고 인내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늘 내 곁가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위해 생명의 구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카다쉬 - 거룩한 자녀



이성우 집사
(유치부 부장)

추운 겨울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이때 유치부 어린이들을 겨울성경학교로 초대합니다.

2018년부터 유치부를 새로 맡아 봉사하고 계시는 김은숙 전도사님이 선두에 서시어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하고 10여명의 유치부 모든 교사들이 "카다쉬놀이터"라는 주제와 "나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라는 교육표어를 가지고 온 함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다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 구별, 깨끗

함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었다는 것으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되도록 겨울성경학교를 만들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과 3월 첫 주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카다쉬놀이터"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카다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기대 합니다.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거룩 · 구별된 어린이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2017년 2월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가 다같이 모여 1층 웨스트민스홀 옆과 701호에 모여 예배 드린지 1년이 지난 지금 영아, 유아, 유치부는 각각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아부에서는 "나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어린이로 구별하여 선택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도록 20명의 교사와 20여명의 아이들이 706호에서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유아부에서는 매월 성경암송과 가정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동영상 촬영하여 유아부실에서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성경공부 외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미술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영·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는 2월 25일(주), 3월 4일(주) 두 번에 걸쳐 702호와 706호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카다쉬놀이터(히브리어 '카다쉬' - 거룩, 구별, 깨끗하게 함)입니다. 나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새학년이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정은지 (중등부)

2018년 1월 7일 첫 중등부실에 들어간 저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유·초등부 때에는 서로 만나면 선, 후배 없이 떠들고 장난치며 밝고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예배를 들었던 반면 중·고등부 예배는 조용하고 경건한 환경이 진짜 이제 나도 청소년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처음 중등부 예배를 보았을 때에는 예전과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저와 친구들은 모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중등부 언니, 오

빠들의 격려와 보살핌에 금방 적응하게 되었고, 선배님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받쳐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13:13)는 말씀처럼 중등부 예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처럼 멋지고 의젓한 모습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열심히 중등부 생활을 하겠습니다.

비전 2020 후원자 명단

- 2교구 : 강택근(정유선)(1)
- 9교구 : 허경화(1) 황재연(1)
- 12교구 : 나미경(1)

(다음 주 계속)

나눔의 집

봄을 기다리며 '나눔의집'에서는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제의 장소요 나눔의 장소인 601호 나눔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나는 안입고, 안쓰지만 누구에겐가는 유용한 옷과 가전들을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오시면 판매금으로 구제와 선교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가져오신 물품은 1층 화장실 입구 수거함에 두셔도 되고, 주일에는 601호에 직접 가져 오시면 됩니다.

담당: 권사회 구제부(조영자 권사, 김유경 권사)

유·초등부 회장단 선뵈

지난 2월 11일 주일에 유·초등부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도 인쇄하고 선거인명부도 만들고 기표소도 따라 만들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모범이 되는 선거를 배웠고 직접 하나님이 쓰실

회장을 뽑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바른 선거』 『바른 참여』 『바른 투표』를 통해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회장단

- <유년부>
- 회장:이예은(3학년)
- 부회장: 박인성(3학년) 윤서진(1학년) 오유민(1학년)
- <초등부>
- 회장: 장유안(6학년)
- 부회장: 김주현(5학년) 김종혁(4학년) 권도영(4학년)

등 정

■ 이종윤로목사는 3월3일(토) 한국기독교교육원 정기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 : 김광태 집사, 최중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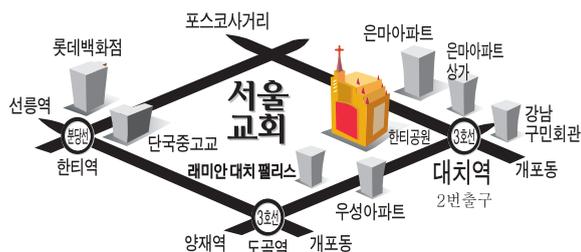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월 25일(주)과 3월 4일(주) 모이는 유아부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 우리 교회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3.1절을 맞이하여 애국애족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